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2)

창조(Creation)



심재승 (돌트칼리지 교수)

칼빈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칼빈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하고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돌트 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신학교수로 재직중이며, 기독교 교육, 기독교대학 교수 훈련과 공공신학에 관련하여 일하고 있다

북미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교단에서 발행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를 연재합니다. 이 문헌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현재의 사고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살 것인가를 다룬 문서로 한국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재합니다. 이 문헌의 소개는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돌트칼리지(Dordt College)의 심재승(신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문서의 한글 전문은 "<https://www.crcna.org/welcome/beliefs/contemporary-testimony/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편집자).

본문 해설

성경이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로 마무리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사고의 출발점이며 기준이고 궁극적으로 구속이 추구하는 목표임을 알려준다. 창조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초월적인 존재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믿음의 관계를 형성한다. 창조주는 물질 세상의 창조와 함께 세상 만물의 질서, 각 피조물의 위치와 삶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과 같은 모

든 피조물들의 작동 원리를 정하신 법의 제정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며 그러한 일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창조의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부터 동떨어진 채 우주의 기원을 주장하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포함하여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두신 뜻에 비추어 인간의 삶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섭리의 근거가 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구속의 범위와 성격을 인도한다.

창조(Creation)

7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것도, 지구상의 어떤 권력의 것도 아니다.
사단이나, 운명이나 우연의 것도 아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이다.¹

8

태초에 성부, 말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형상과 질서를 세우셨다.²

9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빛깔과 아름다움, 그리고 다양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어 식물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기 적합한 집으로 삼으셨다.
그 세상은 일과 놀이, 예배와 경이로움 사랑과 웃음의 공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다. 태초에 만물은 매우 좋았었다.³

10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 안에 살게 되었으며 창조세계를 돌보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관리자와 돌보는 자로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세상이 발전하고 행복함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신다.⁴

11.

남성이나 여성이나, 미혼자나 기혼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피부색깔과 인종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를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촉진하도록 태어나지 않은 태어나 약한 이들을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이들을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⁵

12

역사가 현재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비록 제한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안에 계셔서 만물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모든 것을 자신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주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확신은 우리 삶에 의미와 소망을 부여한다.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다.⁶

1.

(4월호)1번단락을 참고하라.

2.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창조물에 질서를 두심을 살펴보라. 요한복음 1:1-14에서 창조에서의 말씀의 역할과 그 말씀이 예수이심을 살펴보라.

3.

창세기 1-2장 외에 시편 19편, 33:6-9, 104편에서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라.

4.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창세기 1:26-27, 9:6, 에베소서 4:24, 골로새서 3:10, 그리고 야고보서 3:9를 보라.

5.

창세기 1:26-27, 갈라디아서 3:26-28, 그리고 사도행전 2:5-11을 살펴보라. 우리 가운데 곤경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사야서 1:15-17, 야고보 서 1:27에서 살펴보라.

6.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하여 이사야서 45:6-7, 마태복음 6:25-34, 누가복음 12:4-7을 살펴보라.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고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이고 명백하며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이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욕심과 타락으로 인하여 가려진다. 우리는 창조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회복하여야 한다(단락 7).

창조주께서는 ‘형상과 질서를 세우셨다(단락 8).’ 물질적인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만물이 위치하고 작동할 법과 원리를 제정하셨다는 의미이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여 빛을 만드셨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셨다. 넷째 날에는 그 낮과 밤을 주관할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18).’ 여기에서 좋았다는 것의 의미는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고 분리되며, 광명체들과 같은 각 피조물들이 원래의 고유한 기능을 발현하게 하려는 창조주의 뜻과 질서가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창조기사에서 세상의 모든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원리와 법은 창조주께서 만물에 두신 뜻에 따라서 작동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의 뜻이다. 그리고 만물의 작동과 세상의 운영은 창조주의 뜻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생명체들이 ‘살기 적합한 집’으로 만드셨다(단락 9). 본문이 세상을 아름답고, 다양함 그리고 살기 적합함으로 표현한 것에 주목하라. 그리고 인간은 그 집에서 안식을 누리며 일과 놀이, 예배와 경이로움 등을 행하며 사랑과 웃음으로 살도록 초대된 것에 주목하라. 창조기사가 계시하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며 그 안에 창조된 인간은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적으로서 만의 인간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며 전인간이다. 여기 창조 사실은 물질적인 세상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세상 안에서 하는 활동과 그들이 사는 삶,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창조기사에서 물질적인 창조만큼 경이롭고 하나님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세상 안에 살며, 경험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문화이다. 세상은 창조된 대로 변치 않고 유지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에 따라 작용하고 운영되어서 (예를 들어서,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뜻과 의미 그리고 각 피조물들의 존재 이유가 풍요롭게 발전하고 꽃피우는 것이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창조되어 완전하며 또한 그 안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기에 적합하였다. 성경은 선한 창조로 시작한다. 선한 창조가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 계시 즉, 구속사의 기준이 된다.

삶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단락 10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의 목적 즉, 인간의 문화를 해설한다. 인간의

삶은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관리자와 돌보는 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간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어서 '다스리게 하자'는 말씀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다. 창세기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심으로 세상에 대하여 매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신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즉, 작은 왕으로 만드시고, 왕이 해야 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26-28절의 구조로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양식이 인과관계의 형식으로 쓰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읽어내는 인간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세상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도록...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신다'에 잘 나타난다.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들을 사람들이 찾아내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가진 그

리스도인들은 창조 세계의 기초와 방향을 하나님의 창조 소명에 합당하게 적용하는 것을 문화라 부른다. 이러한 문화를 구축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장하면 창조 소명 (또는 문화 소명)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신다.'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삶과 문화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이 된다. 창조 소명은 타락-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속사 안에서 아직 죄의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를 배경으로 다시 논의될 것이다.

창조 소명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로부터 연장되는 삶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두신 인간의 삼중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로서 '창조주-피조물'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로부터 '구세주-구속된 백성'으로 발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관계이며 이것은 다른 모든 관계들의 기초가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로서 모든 인간은 소중하게 존중되고 사랑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창조세계를 돌보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의 관리자와 돌보는 자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세상이 발전하고 행복함으로...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인간이 자연 만물과 가진 관계이다. 이렇게 삼중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영적인 관계만을 가진,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전 인간인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전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존재로 이어졌다.

창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그 후 이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락 9-10에서 밝힌 인간의 원래 모습과 목적은 구속 계획의 성격과 범위를 인도하는데 특별히 이 문서 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에서 구축된 하

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해설하는데 연결되어 나타난다. 창조로부터 구속에 이르는 구조 안에서 본문은 창조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2) 물질적인 창조와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심, (3) 온갖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살기 적합한 집'으로 지으심, (4) 선한 창조, (5) 만드신 세상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심을 통하여 나타난 삶과 문화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마지막 단락 11과 12에서는 현대 문화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이슈를 다루고 있다.

단락 11은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점점 불안해지는 인류의 삶 곧 역사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신앙지침서가 북미 교단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한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이며 어느 부분은 한국사회에 더욱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

모든 인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서로 인정하고 대하여야 한다. 이것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이다. 본문은 그러한 진리의 기독교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책임(소명)이다!(단락 11).' 선물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것은 놀랍고 즐거운 경험이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경험을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사실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복된

선물인데 그 중에서 창조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얼마나 더 귀중한 선물이겠는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신 선물임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귀중한 존재다. 또한 귀중한 소명을 받았으니 마땅히 소중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서로에게 책임이 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책임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공동체적인 것이다.

그런데 성별과 나이 차이의 문제, 인종간의 갈등과 같은 이슈들을 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은 사회에서 다룰 문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구속된 삶에 관계된 것인가? 본문은 후자라고 대답한다. 남성과 여성, 미혼자와 기혼자, 나이가 많음과 적음, 그리고 피부 색깔과 인종의 다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한다. 그것은 구속의 의미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영혼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광범위한 구속의 핵심에 사람들의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은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죄로 인하여 원수 되었던 관계가 창조시의 원래 관계로 환원된다. '유대인이나 헬라 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8).'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간의 갈등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잘 나타나있다. 그 갈등이 미국사회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타락하고 왜곡된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미투 운동이 가장장적인 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것은 놀랍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 범법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처벌하는 일시

적인 집단 카타르시스에 그친다면 그러한 범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투 운동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남녀의 차이, 빈부의 차이, 권력의 유무 그리고 나이와 외모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인명경시 풍조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실천하는 건전한 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도 성숙해져야 한다.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이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낙태와 체내 유전자 조작 등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으로 말미암아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새롭게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생명에 대한 책임이 더욱 부각되고 중요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은 매우 불안정하다.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이 국제적으로 얽혀서 장래를 계획하기도 어렵다. 한반도에 관련된 정치적 협상이 한국의 장래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문화와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삶을 바꾸어 놓은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는 빅 데이터를 넘어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일 켜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다.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개발한 기술이 사람들을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살도록 조종한다. 결과적으로 생활은 윤택하고 편안해졌지만 자유로운 사고나 창조적인 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들은 기술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고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군중에 속해 있 으되 외로우며, 발전되는 사회에 있지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있지만 불안하고, 소망을 가지지만 이내



포기한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위로를 찾는다. TV에서 먹방과 예능이 오래 유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의 갈피를 잡게 할까? 본문은 단락 1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근거로 그 분이 '우리 세상 안에 계셔서 만물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모든 것을 자신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언에 잘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의미와 소망을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다(단락 12).'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하지도 임의적이지도 않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만물의 이유와 목적 즉, 세상을 자신의 집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작정을 실현해 가시는 방편이 섭리이다. 따라서 섭리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종말론적인 정점을 향하여 실

천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확신과 위로를 가지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와 의미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모두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비록 제한적으로 밖에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소극적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방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명(책임, 단락 10-11)을 적극적으로 행할 방편이 된다. 

